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광기

칼엘 보그다노브



광기

칼엘 보그다노브

드디어 바람이 그의 뒤에서 불어왔다. 앞에 멋진 활공이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엘든 모스는 절벽 끝자락에 서서 발가락을 웅크려 발가락 사이의 마른 모래를 밑의 공허한 공간으로 흩뿌리며 그 바람을 마치 신의 축복처럼 음미하고 있었다.

엘든은 밑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곳을 돌아다니거나, 그곳에 착륙하거나, 예쁜 이 지역 소녀를 데리고 내려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빛이 채 협곡의 바닥에 닿지도 않은 이른 아침인 지금, 그는 땅이 없다고 믿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우주처럼 끝없는 심연으로 떠올라 그곳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 동이 틀 때는 아니었지만, 여명의 첫 빛 줄기가 새어나와 진주 빛 청록색 구름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시력 좋은 소년의 눈에는 충분히 밝았다. 그는 수년 전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장비의 끈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끈을 뛰어내렸다.

몰아치는 바람이 글라이더를 가득 채웠다. 절벽의 꼭대기는 황금빛이었고 영영 뻗어나갈 것처럼 보였다. 겹겹이 쌓인 절벽의 끝없는 바다, 나선형으로 솟구친 협곡, 그리고 건조하게 마른 고원까지, 다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대지의 경이로움이었다.

엘든은 고도를 높여 협곡 높이 위로 올라섰다. 마치 해수면 위로 솟구치는 날치처럼 태양빛 위아래를 오가며 움직였다. 학교, 부모, 드래프트... 그리고 또 다른 드래프트. 모든 걱정거리는 뒤에 남겨두었다. 그 모든 것은 땅의 일이었다. 그의 페로 바람이 밀려들어와, 글라이더를 밀어올리고 그의 귀를 울리는 이 하늘 위에서... 엘든은 자유였다.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의 우렁찬 소리보다도 고요하고 희미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엘든의 20년 평생 그 어떤 소리도 이처럼 그의 뺨속 골수까지 스며들진 못했다.

테켈라-리.

뭔가 잘못되었다. 바람이 그의 편이었는데! 그는 정신을 차리려 했다, 심장을 부여잡았다. 나는 심연의 주인이다! 하지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욱 크게...

테켈라-리!

뒤였다. 엘든은 목을 길게 뽑아 뒤를 보았고, 그의 등 뒤에 있는 태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글라이더의 넓게 퍼진 날개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사각지대처럼 느껴졌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른 시간에 그와 함께 공중에 떠 있을까?!

테켈라-리!

그것은 악몽의 소리였다. 열병과 같은 꿈에서나 회자되는 이름 없는 고대의 소리였다. 그는 협곡을 향해 날아들었다. 절박하게 두 발로 지표면에 내려앉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이 괴상하기 짝이 없는 소음을 절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날아가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분노 섞인 가족 날개의 펄럭이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 그리고 기대감 섞인, 꿈틀거리는 살점의 젖은 울음소리였다.

엘든은 놈의 모습이 나타나자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메스꺼운 상처가 난 놈의 악몽 같은 주둥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비명과 이 끔찍한 생명체의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테켈리리리리리!

놈의 이빨에 먹잇감에 다다랐을 때, 협곡은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 * *

"이 마을은 관광객이 필요해."

해스킨즈 시장이 값비싼 시가의 끝을 털어내며 말했다. 린 새론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맙소사, 꼭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말하네.'

린은 피곤하고 불편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을 쫓느라 등허리에 맺혔던 땀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말라갔고, 그녀의 보안관 별이 범인에게서 압수한 무거운 불법 전투 자극제 가방에 눌러 그 꼭지점 두 개가 가슴을 찢러댔다. '신체적 불쾌감의 극치.'

시장은 첫 화재 이후로 점점 주제를 확장하고 있었다. 퀴자다스에서 보안관으로 4년을 보냈고, 보안관의 딸로서 25년을 살았지만, 린은 외부인이 초쓰와 같은 산투성이의 작은 위성까지 올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경치 좋은 협곡에서 글라이드를 타고 뛰어내려 상쾌한 사막 상공의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글라이드광에게 초쓰가 왕관이라면 퀴자다스는 보석이었다. 퀴자다스는 원시 시대에 바닷물이 마르면서 전 협곡과 구역을 통틀어 가장 숨막히도록 아름답게 노출된 독특한 지층들을 펼쳐 보이는 곳이었다.

린의 주된 일은 이곳이 관광객들의 눈에 완벽한 휴양 마을로 보이도록 거슬리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애즈럽 제트팩을 찬 암시장 전투 자극제 판매상을 추격하는 일도 생긴다. 마치 오늘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과속 딱지를 끊거나, 술 취한 진상들을 처리하거나, 차고에서 만든 밀주를 한 잔 하러 광물 온천으로 가는 10대들을 겁주는 것이었다.

나쁘지 않은 일이었고, 린도 숨씨가 좋았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남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지 몰랐다. 유전일지도 모르겠다. 5대째 마을을 보살펴온 할아버지들의 전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별 문제는 없었으니까.

시장이 오랜 잔소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을 때, 린은 부보안관으로부터 추적 중이던 판매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녀가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를 겨우 두 입 베어 먹었을 때이기도 했다. 계란이 아닌 카라크 알로 만들었더라도, 그녀는 그 샌드위치가 제일 좋았다. 시간에 쫓길 때면 뭐든 상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소동으로 끝난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퀴자다스까지 큰 규모의 약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언론사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헛소리.'

차고 어두운 시장의 집무실 밖으로 나온 린을 뜨거운 열기가 마치 주먹이 된 마냥 강타했다. 평소였다면 넓고 덜컹거리는 LAV 를 타고 현장을 단속하러 돌아다녔겠지만, 시장을 만나기 전에 크루저로 바꿔 탔었다. 깨끗한 마을에 진흙으로 얼룩진 문과 낡아빠진 기관총이 달린 LAV 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혹시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라도 생긴다면 작은 협곡 하나 넘기도 힘들겠군.' 린이 투덜대며 크루저 위에 올랐다.

린의 두 구역을 넘어오는 동안 세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고, 수제 가구 매장, 명품 치즈와 "정통 프로토스 콩 스프레드"를 파는 가게(린은 프로토스가 입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를 지나자 전화가 걸려왔다.

"새론입니다. 말씀하세요." 린이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다. 두 명의 부보안관 중 하나인 리타의 상냥한 얼굴이 나타났다.

"린, 북쪽 절벽 대여점의 돌리 후아레즈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뭔가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꽤 많이 놀란 것 같던데요."

린의 속이 울렁거렸다. 역설적이었다. 린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그 망할 협곡이었다.

약간의 돈이면 당신도 협곡 위에서 뛰어내려 글라이딩하면서 초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잘들 그리고 노시라지.' 린은 생각했다.

그녀는 공포 때문에 덜덜 떨려오는 몸을 추스르고 방향을 돌렸다. "고마워, 리타. 내가 알아볼게. 망할 부자 녀석이 저 위에서 설치다가 죽었다고 말하면 핏 해스킨즈가 뭐라고 할까? 오늘 '이 마을은 관광객이 필요해.'라는 말을 두 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행운을 빌어요, 보안관님."

* * *

글라이더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시체는 더욱 처참했다. 훨씬 처참했다. 돌리 후아레즈의 물골이 말이 아니었기에, 리깅 테크, 디움 플렉이 린을 데리고 시체가 누워 있는 구불구불한 정비로로 데려갔다

두 입 베어먹었던 카라크 달걀 마요네즈 샌드위치가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린은 시체 때문에 메스꺼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실은 1 미터 앞의 깎아지른 절벽 때문이었다. 앞쪽으로 협곡도 높ی 솟아 있었다. 린은 그 광경을 보며 수백만 번은 더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걸 올라갈 생각들을 하지?'*

그녀는 사체의 가슴 쪽에 벌어진 상처를 보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시체는 굴러 떨어져 뒤집혀 있었지만, 흉부의 관통이 치명타였다는 건 확실해 보였다.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앨든 모스는 평범한 부유층 꼬마였어. 대학교 미식축구 스타지. 올해 드래프트에서 1 순위로 뽑힐 친구였어. 아스트로이즈와 타이거즈가 지난 한 달간 비공식적으로 계약금을 제시했다는 말도 있었고."

린은 뒤틀린 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멋진 패스도 힘들겠군, 우승 파티, 예쁜 여학생, 터치다운도 끝이야. 여러모로 안타깝군.'*

플렉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이 친구는 온 구역을 글라이딩하고 다녔어. 어릴 때부터 여름이면 아버지와 함께 올라오곤 했거든. 젠장, 돌리가 이 녀석 싸인이 적힌 미식축구 공을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앨든은 벌써 몇 년째 가이드 없이 글라이딩을 했어. 이른 아침마다 리조트에서 여기로 온 것 같더군... 장비함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올라온 것도 몰랐을 거야."

"꽤 오랫동안 글라이딩하셨죠? 어떻게 보시나요?" 팔을 걷어 셔츠 주머니에서 펜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린이 물었다.

"만약 초심자가 실수해서 제프 III 에서 부는 것 같은 강한 돌풍에 맞았다면 바위로 떨어졌을 거야. 굴러 떨어졌다면 글라이더가 충격을 받고, 뼈가 부러지거나 얇은 상처가 생기고 말았겠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졌대도 저런 상처를 입은 건 본 적 없어."

"그럼 피는 어디 있죠?" 린이 물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오래 피를 흘렸었다고 가정해도 여기 어딘가에는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없어요."

"뭔가 이 친구를 주스 봉지처럼 쪽 빨아 먹은 것 같군." 플렉은 수 년간의 야외 활동으로 까맣게 탄 자신의 벗겨진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박쥐가 시체를 발견했을지도....."

"하지만 이 친구처럼 덩치 큰 녀석의 피를 빨아먹으려면 박쥐가 많이 필요할 거요. 게다가 달이 지기 전부터 이 상태였다는 걸 생각하면..."

'문제가 커질 징후가 농후하군.' 린은 생각했다. 또한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은 없었지만 플렉 역시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보안관 아가씨... 나는 군대 출신이야. 그곳에서 공수부대 하강 훈련을 받았지. 살아 있는 외계 생물을 본 적은 없어. 그래도 신병 훈련 때 교육 영상은 봤지.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저런 짓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를 봤어."

정말 문제가 커졌군. 린은 생각했다. "군 소집 때 무기는 가지고 가셨나요?"

"SR-8 이라는 연발포를 가져갔지. 주말에 사냥 나갈 때 가져가면 멧돼지 하나쯤은 날려버릴 수 있는 녀석이야."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닐 땐 그걸 꼭 챙기세요. 알겠죠?" 린이 발 뒤꿈치를 탁탁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죽은 청년의 시체에서 멀어지며 말했다.

"외계 생물이라고 생각해?" 플렉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 없어요." 평원에서 시선을 돌리며 린이 말했다. "해스킨즈가 문제죠."

* * *

"당연히 안 되지."

시장의 안색이 백지장 같은 흰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었다. '우리 모두 10 년에 한 번씩 의사에게 피부 암 검사를 권고 받는 와중에 시장은 어찌 저리 피부가 하얗지?' 린은 생각했다.

"취임식 주말에 협곡을 닫는다고? 아주 세무서에 불을 지르지 그래? 협곡에 뮤탈리스크라니 말도 안 돼! 대체 초쓰가 저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문제가 생긴 와중에 여기로 낙오한 놈들일 수도 있죠." 린은 다른 구역 모두 "전쟁"이라 부르는 현재 상황을 이 마을에선 촌스럽게도 "문제"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무척 싫었다.

린은 초쓰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 군대는 중간 기착지를 사막 한 가운데에 만들었고, 전쟁은 결국 저그와의 소규모 국지전만으로 끝났다. 그나마도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했고, 위성의 반대편에서 일어났을 뿐이었다. 퀴자다스에서 희생된 것은 그녀의 아버지뿐이었다.

사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잃지 않았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 때문에 린은 주위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자신에게 완곡하게 표현해 왔다고 생각했다. 그 덕에 린은 종종 그 일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은 이미 시장과 충분히 씨름한 상태였다.

"말도 안 돼. 그 문제는 저 멀리 빔 바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병대 정화병 세 팀이 이 위성 전체를 소독했어. 우리 도시 예산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초쓰는 안전한 휴양 도시야."

린은 그의 목을 조르지 않으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뮤탈리스트는 다른 벌레들보다도 더 벌레 같은 녀석이라고 해요. 저그 군단이 명령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지만, 가끔은 그 콩알만한 머리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간대요."

"글라이더 사고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의 생계가 끊기게 할 순 없어. 거기 올라갈 때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잖아?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 친구는 냉동 관에 넣어줘. 이 건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이걸로 끝이야."

* * *

끝이 아니었다. 이틀 뒤 세 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온 가족이 비행 중 살해당한 것이다. 린은 이 이야기를 불쌍한 디움 플렉으로부터 들었다. 산성 피가

그의 왼쪽 팔을 녹여버렸고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고 한다. 그는 린의 말대로 연발포를 가져 갔었고, 놈에게 한 발 쏘는데도 성공 했지만, 그때 놈의 밑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다.

'뮤탈리스크의 체액은 대기 중에 노출되면 강한 부식성을 띤다.' 린은 되뇌었다. 시장의 멍청한 생각을 돌려놓지 못했던 그날 밤, 하이퍼넷에 접속하여 뮤탈리스크에 대해 살살이 뒤져봤었다. 놀랄 만큼 정보가 부족했고, 린은 오전 근무자인 리타가 출근해서 그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 직전에야 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해스킨즈 시장은 방에 들어온 이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창백한 얼굴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플렉의 목골을 보지 않으려 했다.

"놈이 바로 옆에서 날았다고, 세상에, 린. 바로 옆에서!" 플렉이 불평하듯 말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플렉. 제가 거기 있었어야 하는데."

정말 그게 나았을 거라고 린은 생각했다. '하지만 저 망할 협곡에서 싸웠다면 나라고 뭐 달랠을까.'

빌르 박사가 플렉에게 주사를 놓자, 플렉은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박사가 팔을 깨끗이 잘라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을 때, 린은 해스킨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시 바람 좀 쐬시죠."

밖은 화창했고 신선한 바람이 빌르 박사의 작은 수술실에서 풍기던 지독한 냄새를 씻어냈다. 린은 감사해하며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해스킨즈는 마치 5 킬로미터 마라톤을 땀 흘려 뛰었다.

한 시간 안에 스트롱과 이야기해야겠어요.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안 되요. 한 시간 안에요." 린이 말했다.

해스킨즈가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여 몸에서 머리가 분리될 것 같았다. 린이 계속해서 말했다. "망할 자치령 의원님이시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정치 좀 하게 하자고요."

* * *

강하다는 뜻의 스트롱은 초쓰 자치령 의원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는 항상 공약한 것의 5%정도만 지켰고, 그마저도 다 초쓰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퀴자다스를 위해서였다. 린은 10 클릭 서쪽에 있는 리조트 관리인들의 거주지, 짬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하지만 린은 죽느냐 사느냐의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트롱은 다음날 아침 수송기 편으로 자치령의 지원병력이 올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에 더 가까운 곳에 또 한 번의 공격이 있었다.

린은 스트롱을 믿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양모 스포츠 코트를 입은(초쓰의 여름에 양모라니!) 40 킬로그램 정도 되어 보이는 왜소한 책벌레가 도착하여 그녀를 반겼을 때, 그녀는 왼쪽으로 기웃거리며 혹시 자신이 요청 했던 장거리 미사일 포탑이 저 괴짜 뒤에 있는 건 아닌지 쳐다보았다.

"새론 보안관님?" 그가 말하고 잠시 멈췄다. "새론 보안관..." 그는 자신의 말을 조용히 곱씹었다. "이름이 잘 어울리네요." 만족스러운 표정의 그가 손을 내밀었다. "브래드 챔플레인, 특수 연구 작전과 소속입니다. 뮤탈리스크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린은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눌렀다. "그건 지금 상황에 할 말이 아니에요, 챔플레인 씨.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 지금 당신 말고 엄청난 수의 지대공 미사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안관님. 보급 본부에서 그런 물건은 좀... 많이 아껴서요. 음... 괜찮으시다면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계속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 위성의 열기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 * *

"뮤탈리스크 전문가신가요?"

그들은 골프 코스가 내려다보이는 아가브 클럽에 있었다. 우주공항 근처에 있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었다. 린은 그곳에서 파는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를 좋아했다. 수입한 진짜 계란을 넣는 곳이었다. 그녀가 받는 봉급에 비하면 좀 비싼 곳이었지만, 뭐, 접대용 점심이니.

챔플레인이 웃었다. 공손하고 학구적인 느낌의 웃음이었다. "만약 뮤탈리스크의 전문가가 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겠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놈들은 연구하기 쉽지 않은 생명체죠."

'깡소사' 린은 생각했다. 머리가 크게 울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뮤탈리스크 처치를 도와 주실 순 있죠?"

"장기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죠. 뮤탈리스크가 수수께끼인 이유는 철저하게 신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뮤탈리스크는 끈적거리는 체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껍질이 손상되면 강한 산성 물질로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의로 죽어버리는 거죠."

"멋지군요. 어떻게 하면 놈들이 자의로 죽게 만들 수 있죠?" 린이 물었다.

챔플레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무력화시키면 되죠."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처치하는 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직접 처치하라는 거네요? 챔플레인 선생님."

"그냥 '박사'라고 부르시죠."

"놈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열 마리가 몰려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오, 그럴리가요."

린의 참을성이 한계로 치달고 있었다. "네. 북쪽 절벽에 찍힌 보안 감시 카메라에서 봤어요. 최소 다섯 마리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수일 동안 다섯 마리 이상의 뮤탈리스크가 같은 곳에서 사냥하고 있는 걸 봤다면 최소 120 클릭 안에 동지탐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지탐이요?"

"동지 말입니다, 보안관님. 최소 육십 마리 이상은 될 겁니다."

린은 평소였다면 주로 협곡과 연관되어 있을 뱃속의 울렁거림을 느꼈다. "육십 마리요? 지금 뮤탈리스크 육십 마리가 우리 마을을 집어 삼키려는 중인데, 당신 한 명 달랑 보낸 건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신처럼 총 한번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사람만 보냈냐고요?"

"정말 들어본 적 없어요.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미안해요.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걸 그랬어요." 린이 한숨을 쉬었다.

"만약 육십 마리의 뮤탈리스크를 박멸할 생각이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말은 근처의 먹잇감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상황이 갈수록 더 나빠질 수 밖에 없고요. 그래도 전 여기 남아 놈들을 연구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전 이 생물들이 무척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박사님이라고 해주세요." 그가 쾌활하게 답하곤 스페인식 오믈렛을 한 입 베어 먹었다. *(카라크 달걀이었다. 덕지덕지한 양념을 보면 확실하다)*

린은 자신의 계란 샐러드를 보았다. 쉰 다섯 마리 뮤탈리스크 얘기를 듣기 전에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웠는데.

'젠장!' 린은 생각했다.

* * *

"육십 마리요?" 리타가 물었다.

해스킨즈와 마을 어르신들과 지루한 회의를 계속하다 사무실로 돌아온 린은 자신의 요청으로 대피 공고를 만들던 리타를 만났다.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야.*' 린은 생각했다.

린은 허리의 무기를 풀고 책상 서랍으로 던졌다. 그리곤 자신의 친구이자 부보안관 옆의 책상에 털썩 주저 앉았다.

"챔플레인이 말하길, 놈들은 전쟁 이후로 여기 정착했을 거래. 이곳 박쥐나 협곡 깊숙한 곳의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을 거라고. 그의 말이 맞을 것 같아. 한창 전투 중이었을 때는 조용했잖아. 여기 박쥐는 5 년에 한 번쯤 개체 수가 늘곤 했는데, 지난 2 년간은 상당히 조용하기도 했고..."

린은 한숨을 쉬었다. *'날씨도 그녀의 마음을 잡쳐 놓았다. 차라리 내가 기상학자였으면 마을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지도.'*

리타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린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그의 말로는 협곡을 멀리하고 집에 있어야 한댔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놈들이 자꾸 협곡 밖에도 나타나는 걸 봐선... 절벽 쪽 거주지는 버려야 할 것 같아.

"맙소사, 해스킨즈가 엄청 열 받아 하겠군요. 몇 주 뒤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린은 손을 펼쳤다. "화력이 필요해. 자치령은 별 도움이 안 돼. 놈들은 정화 팀이 실수한 곳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겐 용병이 필요해. 하지만 이런 마을에 용병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이야."

"당신처럼 든든한 보안관이 있어도 그럴까요, 린?" 리타가 윙크하며 말했다.

린은 그녀의 친구에게 고개를 돌리고 미소 지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야."

린이 아버지 밑의 신참 부보안관이었을 당시, 리타는 신탁 적금이 쌓여가는 동안 아가브에서 클럽 샌드위치를 주워먹고 저녁에는 글라이딩을 즐기던 철부지 꼬마에 불과했다.

둘은 리타가 술 취한 무역꾼들 몇 명과 싸움에 휘말렸을 때 처음 만났다. 린과 늙은 아르코 부스케트가 이 건을 맡은 보안관이었다.

리타는 귀족의 자녀였고, 그들은 딸이 라크로스 팀의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사교계의 인기인이 되길 원했다. 반면 린은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키우는 것만 같은 우직한 보안관의 딸이었다.

둘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붉은 곱슬머리와 올리브 빛 피부가 돋보이는 우아한 리타의 눈에, 린의 거친 금발머리는 마치 밖에서 바짝 말린 침대 시트 같았고, 혈색이 좋은 피부는 햇빛을 아무리 쬐도 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다. 린과 리타는 수년간 붙어 다니며 "R & R 위스키나 마셔라"는 농담을 끝없이 견뎌왔다. 결국 둘은 그 멍청한 별명을 자신들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리타와 가족들과의 문제가 폭발했을 때, 린과 아버지는 리타를 받아들여 작은 수사대의 일을 맡겼다.

새론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린을 어둠에서 끌어내준 건 리타였다.

리타의 전 가족이 저그 습격에 몰살당했을 때, 린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리타가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에 보답했다.

리타의 다섯 살 사촌인 재스퍼가 살아남은 마지막 친척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을 때도, 린은 망설임 없이 리타를 도와 그를 양육하겠다고 나섰다.

초쓰의 보통 예쁜 여자아이처럼, 린은 한 여름의 잘생긴 남정네들과 어울리곤 했지만, 아무도 린과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타가 그랬다. 그녀는 마치 여동생보다도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린은 아버지가 그녀를 아들처럼 길렀던 것보다도 더 아버지처럼 재스퍼를 대했다. 특이한 가족이었다. 고아 하나와 두 여자 보안관이라니. 하지만 가족은 린이 가진 모든 것이었다.

"떨리는요?" 리타가 물었다. "용병대에 있다고 들었는데?"

"리타, 그 아저씨는 레이너 특공대 소속이야. 돈 벌이도 안 되는데 이런 곳까지 오진 않겠지."

리타는 잠시 침묵했다.

"리타?" 린이 급박하게 말했다. "며칠 간 재스퍼 좀 집에 데리고 있어. 홀로 비디오 같은 거 좀 빌려두고."

린은 리타가 희미한 책상 불빛 아래서 고덕이는 걸 보았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린이 자러 가야겠다 마음먹은 순간, 리타가 말했다. "그러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알지도 몰라요. 온 세상에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 * *

"맙소사, 레트 새론네 꼬마잖아. 잘 있었니, 아가씨?"

"아니요, 펄리. 여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뮤탈리스크예요." 린이 말했다. 모니터가 히페리온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해독하기 위해 크게 깜박이고 있었다.

"뮤탈리스크?!"

"우리 구역에 정착했어요. 펄리. 지금 협곡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펄리의 아버지인 아르코를 포함한 온 가족이 초쓰 반대편의 빔 바텀에 살고 있었다. 린은 그가 가장 먼저 가족을 걱정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퀴자다스 협곡에서 수리했던 협곡의 호텔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펄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무척 좋아했던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의자를 마치 몇 광년이나 떨어진 곳까지 밀어내듯 벌떡 일어나더니 큰 한숨을 내뿜었다.

"어쩌면... 어쩌면 널 도와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만 괜찮으면, 지금 통신이 끊어지자마자 내가 연락해 볼게. 하지만 경고할 게 있단다, 린. 이 남자를 고용하면, 그 벌레는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한 놈도 남기지 않고.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녀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펄리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늘이 보낸 분 같네요, 펄리."

"좋아. 브렉 쇼우라는 남자인데, 아마 금요일이면 거기 도착할 거다."

* * *

브렉 쇼우는 수요일 늦게 다 쓰러져가는 수송선을 타고 퀴자다스에 도착했다. 그 모습을 보자 린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해스킨즈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린이 펄리와 통신을 끊은 날 이후로 벌써 두 명의 희생자가 더 생겼고, 마을은 벼랑 끝에 놓인 상태였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용병을 만나기 위해 격납고로 들어섰다.

쇼우는 주름투성이의 다혈질 남자였고, 미숙한 조각가가 깎아낸 옹이나무 같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는 깊은 사팔뜨기 눈으로 린과 해스킨즈를 노려봤다.

"당신이 보안관 아가씨인가?" 그가 마치 그르렁대는 전기톱 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트린 새론입니다."

'맘에 안 드네.' 린은 생각했다. 리타는 사람들을 대부분 싫어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것이다. 린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린은 가치 없는 사람들도 좋아했다. 쇼우가 일만 잘 처리해준다면 나도 곧 좋아하게 되겠지.

"당신이 그 정치인이겠고. 쇼우가 해스킨즈를 훑어보며 말했다.

해스킨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도넛인줄 알고 비누를 베어먹은 사람마냥 어색했다.

"내가 처리해야 하는 뮤탈리스크 문제가 있는 거겠지? 까짓 거 해주지. 기본 30,000 크레딧에 장비와 수리비 별도. 그럼 당신네 하늘이 안전해질 거요."

"할 수 있어요?" 린이 물었다.

"아, 당연하지."

"미안하지만, 쇼우... 씨. 당신이 협상해야 할 상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해스킨즈는 이 말을 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작게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이 정도의 지출은 시의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에 모여서..."

쇼우는 히죽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린은 그의 눈에 웃음기가 없었던 걸 알아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꺼져버린 엔진처럼 고요했다.

"다섯 명이 죽었는데 지금 시의원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여섯이예요," 린이 끼어들었다.

쇼우가 반응했다. "응?"

"여섯 명이라고요. 당신이 오는 도중에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 망할 마을 회관은 어디 있지?" 그가 다시 전기톱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시내의 센터 그린이에요. 지금 크루저로 모셔다 드릴게요."

"크루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수송선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린은 해스킨즈에게 당황한 눈길을 보냈다. '*내 상사만큼이나 재수 없는 녀석이군!*'
린은 생각했다.

수송선 안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거대한 화물 칸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쇼우의 능력에 대한 린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함선 밖으로 린이 지금껏 봐온 것들 중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골리앗이 걸어 나왔다. 쇼우는 조종대를 잡고 있었는데, 측면에는 *플라이스와의터1* 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실 린이 골리앗을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앨든 모스가 죽은 후 읽었던 뮤탈리스크 퇴치법에 대한 기사들 중에 이런 보행 로봇이 나왔었다.

쇼우는 일반적인 활강 자동포 두 개를 개틀링 기관총으로 교체하여 골리앗의 팔에 연결시켰다. 린이 보기에다 공중의 대상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그는 또 불법 개조한 UED 미사일 포와 Y자형 선회포를 골리앗에 탑재했다.

'맙소사, 꼭 악마가 만든 레이저 포 같군! 어떻게 저런 걸 달고 움직일 수 있지?!'

그녀가 질문을 다 떠올리기도 전에, 쇼우의 골리앗은 이미 격납고 밖에 나와 최고 속도로 린의 마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다.

'젠장!' 린은 크루저를 향해 뛰었다.

* * *

쇼우는 속도 위반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를 따라 마을까지 달리는 동안, 린의 낡은 크루저는 내내 계속해서 한계까지 올라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다행히 린과 해스킨즈는 무사히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쇼우가 마을 회관 밖에서 경적을 울려, 작은 휴양 마을의 정적을 깨고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찻집방과 테니스장으로 뺨뺨이 둘러싸인 마을 회관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시의원, 걱정 섞인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이들이 경적 소리에 짜증이 난 듯했고, 어떤 이들은 단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쇼우는 골리앗에서 내려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브렉 쇼우요. 뮤탈리스크 사냥꾼이지. 난 지금껏 개인적으로 30 개 이상의 등지탑을 파괴했고, 다른 이들과 함께 100 여 개 이상을 파괴했소. 다들 괜찮다면, 당신네 뮤탈리스크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군중은 수근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누군가 외쳤다.

"일을 마친 후에 돈을 주시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날 감독한다고 해도 상관 없고."

군중은 더 크게 수근거렸다. 이번엔 만족한 듯한 시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까?"

"등지탑의 위치만 알려주면 일주일 정도 걸릴..."

"아뇨!"

모두가 몸을 돌려 안경을 코 위로 밀어올리는 챔플레인을 바라봤다. 그는 말이 없었다.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협곡에 제가 설치한 장치들이 뮤탈리스크의 활공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놈들이 사는 곳을 거의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쇼우가 본인의 말에 끼어든 것에 놀랐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고, 챔플레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챔플레인이 말을 마쳤다. "제가 동지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완벽하군! 완벽해. 이제 자네가 이 자치령 뮤탈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게."

'이제 시의원까지 한 배를 탄 건가.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인데.' 린은 생각했다.

쇼우는 "제기랄!"로 추정되는 소리를 작게 내뿜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린도 말을 뱉어 버렸다...

"저도 갈게요."

* * *

"하지만 왜요?!"

린은 재스퍼가 반대할 거라는 데 맥주 한 잔을 걸었고, 이로서 그걸 차지했다.

소년은 벌개진 얼굴을 린에게 들이밀었다. 재스퍼는 리타와 닮았지만 행동은 린 쪽에 더 가까웠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린은 잠시 들떴지만 이윽고 감정을 추스렸다.

"이 쇼우라는 양반이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곳의 누군가는 우리 상대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또 거기서 마을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근데 왜 하필 누나가 가냐고요?" 재스퍼가 물었다.

린은 한숨을 쉬고 소년의 어깨동무를 했다. 아버지와는 백 번도 넘게 했던 그런 어깨동무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뿜었다.

"여긴 내 마을이니까."

* * *

"함께 가야 해요." 리타가 불평했다. "우리 R&R 자매가 외계인에게 혼썰을 내주자고요!"

"리타," 린이 말했다. "놈들 중 단 한 마리라도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키스가 우리 마을의 유일한 보안관이 되면 좋겠어?"

린은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리타는 농담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말했다.

"리타... 만약 거기서 죽기라도 하면... 죽어버릴 거야."

린은 웃었다. "몸 조심해."

* * *

다음 날 새벽, 린이 고물 LAV 를 몰고 도착했을 때 챔플레인은 이미 짐을 다 챙긴 후였다. 쇼우와 챔플레인은 오후의 일부를 박사의 자그마한 연구선을 플라이스와터의 등쪽, 그러니까 미사일 밑의 가장 안전한 곳에 탑재하는 데 썼다. 그 모습은 마치 골리앗이 귀여운 보조 좌석을 가방처럼 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것 때문에 최대 속도가 5 에서 10 퍼센트 줄어들 거야." 쇼가 불평했다.

"저 거대한 미사일 받침대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20 퍼센트를 동력으로 운용하라고 작업 통제 장치에 명령하세요. 그 정도면 구동부에 무리를 주진 않을 겁니다. 동지탑을 발견하면 절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거예요." 챔플레인이 말했다.

쇼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러면 되겠군."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린이 말했다. "준비됐어요?"

"당신이나 준비하시지, 보안관." 쇼우가 거만하게 말하며 조종석에 올랐다. 챔플레인이 눈을 흘기는 모습이 보였다.

서먹한 삼총사는 곧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사막을 향해 출발했다. 린의 LAV 가 기괴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을 따라 낮의 열기 속으로 멀어져 갔다.

* * *

"사실 이걸 제 두 번째 박사 학위예요. 첫 번째는 유기 화학이었죠. 그 전공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주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인지는 아시죠? 과학자가 코프룰루 구역에서 어떻게라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전쟁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거."

린은 비디오 화면에서 횡설수설 수다를 떠는 챔플레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하죠. 대체 왜 그들이 당신을 여기 보냈을까요? 만약 뮤탈리스크 행동 패턴을 조사하려고 했다면... 지금도 이 구역의 절반은 전쟁 중인데, 그에 비하면 이곳 문제는 사소하잖아요."

"박사님이라고 해주세요," 챔플레인이 흘쩍이며 말했다. "제가 제안한 임무예요. 당신네 동지탑은 어쩌면 제가 노리는 큰 건을 확인할 장소일 수도 있고든요."

"잠깐만, 무슨 말이죠?" 린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그는 적응력이 강해요. 그들의 유전자 정보는 법칙이라기보다 지침에 가깝죠. 이게 무슨 말이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볼 테니." 린이 장난을 쳤다. 비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죄송해요. 음... 뮤탈리스크는 저그 중에서도 가장 적응력이 강해요. 진공 상태의 우주를 아무 도움 없이 날 수 있고, 생식관을 무기로 진화시키기도 했죠... 뮤탈리스크는 진화를 통해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어요.

'무시무시한 특징이겠지.' 린은 생각했다. *'그쯤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챔플레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뮤탈리스크가 적응한 것 중 하나는 동지탑 친구들의 부식성 체액에 대해 선천적인 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동지탑에서 가까이 밀착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당신 동생이 종이에 베여 상처라도 나면 당신 몸이 녹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으려면 내성을 키워야겠죠."

린은 챔플레인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꽤 귀엽네.' 그녀는 생각했다. '기생 유충을 넣고 산성 피를 뿌리는 무자비한 날벌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뮤탈리스크는 소량 유출된 체액에 대해 내성이 있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죽거나 신체가 절단되는 상황에서의 부식성까지는 견디지 못하죠. 그만큼의 내성을 기를 만큼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린이 물었다.

"뮤탈리스트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대신 둥지탑을 지키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러니까 수백 만 마리 중 하나 정도가 그런 본능을 지니고 태어나요. 이 뮤탈리스크들은 일반적인 뮤탈리스크보다 더 오래 살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뮤탈리스크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그에 따른 신체 절단에서까지 세포 수준에서 체액의 부식성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특수 뮤탈리스크 이론이라고 하죠... 이게 제가 노리는 큰 건이에요."

"우리 둥지탑에서 그 건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린이 물었다.

"외딴 위성예, 전략적으로 감염된 것도 아니고, 식량 자원도 넘치고... 이곳의 뮤탈리스크들은 초쓰의 군락 두 개가 자치령에 의해 파괴된 후 여기 숨겨진 둥지탑을 찾아냈을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해병 정화 팀의 눈을 피하기도 했죠. 좋은 후보예요. 이 지역의 자연 지형, 절벽과 벼랑은 탐지를 피하기에 좋은 환경이고요. 이곳이야말로 뮤탈리스크가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둥지를 들키지 않고 숨어 번창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린이 물었다.

"보안관님, 그들이 정말 매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힘들다는 겁니다." 챔플레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둘의 말을 듣자 하니." 쇼우가 말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 린은 그가 있었다는 사실도 거의 잊고 있었다. 그가 끼어들자 비디오 화면으로 그의 냉소 섞인 미소가 나타났다. 조종석의 작은 와이드 스크린 카메라가 그의 상처를 기괴할 정도로 돋보이게 했다. "지금 무슨 곤충 채집이라도 가는 줄 아나? 뮤탈리스크 한 포대기는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작은 상자에 넣어다 핀이랑 솜으로 고정시키지 그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조롱이 묻어 있었다. "뮤탈리스크는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 살인마야. 온 구역을 다 통틀어 가장 사악하고 악마가 뱉어낸 살인마 같은 괴물이라고. 놈들의 부위 중 살인에 쓰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놈들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챔플레인이 바로 반격에 나섰다. "우리가 이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놈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건만 제대로 풀린다면 다음에 저그와 싸워야 할 다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

"닥쳐! 둘 다!" 쇼우의 관심이 순식간에 다른 쪽에 쏠리더니 그의 관심은 그것으로 완전히 옮겨갔다. 그는 골리앗의 운전을 멈추었고, 린은 신호를 알아채고 LAV의 엔진을 껐다.

"뭐죠?! 무슨 일이에요?" 챔플레인이 물었다.

"닥치고 똑바로 봐!" 쇼우가 으르렁대며 말했다. "저기 위를 보라고..."

쇼우가 자신의 콘솔을 두드렸다. 그리고 1 초후, 린의 화면에 특정 지점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쌍안경을 꺼내 그가 그가 표시한 지점을 확인했다.

세 마리의 뮤탈리스크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멧돼지에 달라붙어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린에게 돼지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높고 가늘며,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린은 멧돼지 몇 마리를 직접 사냥해본 적이 있었다. 코뿔소 크기만 한 강인하지만 영약한 놈들이다. 누구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들이받곤 한다. 하지만 순간 그녀는 이 야수가 불쌍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제 말이 맞죠?" 챔플레인이 속삭였다. "이 뮤탈리스크들은 첫 감염 때 퍼졌던 공생 영양분 유기체, 즉 '점막'이 사라진 이후 수분 섭취가 필요했을..."

평 소리와 함께 플라이스와터가 다시 살아났다. 챔플레인의 목소리 같은 "으악!" 소리와 함께, 쇼우는 언덕으로 달렸다.

뮤탈리스크는 비명을 지르더니 날개를 펼쳤다. 린이 놈들의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등골 서늘한 울음, 그 소리는 뮤탈리스크의 기원인 비명 사마귀로부터 유래된 악명 높은 장송곡이었다. 그 소리가 린의 가슴에 박혔다.

"테켈리-리! 테켈리-리이이!"

'존재해선 안 되는 소리야.' 린은 생각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나 들어야 할 소리라고.'*

뮤탈리스크는 한 바퀴 빙 돌더니 플라이스와터를 향해 똑바로 날았다. 놈들의 산란관이 꿈틀거리며 썩기 벌레를 쏟아냈고, 린은 쇼우가 이성을 잃은 채 놈들을 향해 자살 공격을 감행한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쇼우의 기관포가 회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뮤탈리스크는 20 미터 밖에서 산성의 피를 비처럼 뿌리며 추락했다. 린은 체액 방울이 지표면에 떨어져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머지 둘은 쇼우와 플라이스와터를 노렸다. 쇼우는 괴물에게서 튀어나온 더러운 썩기 벌레들을 향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들은 빗발치는 탄환에 평터지더니, 땅에 떨어져 쉬익 소리를 냈다. 의식하지 않던 린의 속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뮤탈리스크가 접근했다. 놈의 딱딱거리는 아래턱과 돌기가 쇼우의 조종석을 향했다. 린은 비디오 화면으로 쇼우의 으르렁대는 소리와 기관포를 휘두르는 모습을 봤다. 그가 기관포를 오른쪽으로 거칠게 휘둘렀고, 뮤탈리스크는 모래 위를 뒹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시 돋친 날개를 휘두르던 뮤탈리스크는 발톱을 땅에 박아 멈추더니, 공중을 향해 날아 올랐다. 그 반짝이는 눈을 린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뮤탈리스크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는 대부분 거친 화면의 군 훈련용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대부분 공중에서 찍은 것이었다. 영상에선 펄럭이는 날개와 뒤틀린

나머지 몸통이 주는 혼란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린은 뮤탈리스크의 모형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갖고 날개를 펼친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공포와 혐오감이 린에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차올랐다. 그녀의 머리 속 깊숙이 작은 본능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아니면 넌 죽을 거야!*' 직감이 그녀 몸을 타고 흐르는 순간, 그녀는 손을 후진 스위치 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쇼우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터져 나왔다.

"하하! 이 개자식들아! 너희와 함께 지옥에 가주마!" 화면 속의 그는 침을 튀기며 목청을 높였다.

충격을 회복한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AGR-14 포를 들어올리고 몸을 기울여 전방의 뮤탈리스크에게 세 발을 발사했다. 비명을 지르는 놈의 핏방울이 LAV 의 보닛에 튀어, 철판에 작은 구멍들이 났다.

쇼우는 이제 막 세 번째 뮤탈리스크를 해치운 상태였다. 그는 린을 향해 달려들어 두 번째 뮤탈리스크의 꼬리를 잡더니 튀어나온 돌덩이에 찍어버렸다.

"네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알았으면 좋았을 걸." 쇼우가 으르렁대곤 뮤탈리스크의 얼굴에 총을 댔다.

...그리고 괴수 뒤쪽의 바위에 축축한 산성 구멍이 뚫렸다.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승리에 환호할 때 입 한 쪽에 고이던 침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좀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체액이 퍼져가며 지표면에 거품을 일으켰다. 쇼우는 길길대며 살아남은 마지막 썩기 벌레 한 마리에 거대한 총알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린은 쇼우가 챔플레인을 향해 목을 치켜올리는 모습을 비디오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래, 박사님. 이렇게 '목숨을 살리면' 되겠소?"

* * *

오후가 되자 린은 안전부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번의 전투에 휘말렸다. 각각 뮤탈리스크 두 마리와 여섯 마리 무리였다. 그리고 두 번 다 쇼우는 괴물들을 도발하고 놈들을 처치할 때마다 미치광이처럼 웃어댔다.

"쇼우!" 린은 쇼우가 가랑이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선으로 마지막 벌레를 날려버리는 장면을 보자 이윽고 소리쳤다. '*팝소사!*'

"무슨 일이죠, 아가씨?"

린은 그의 짓궂은 말투를 무시했다. "저라도 아빠의 낡은 AGR-14 로 방황하는 뮤탈리스크 몇 마리 정도는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목표는 동지탑이었을 텐데요"

"당신네 귀여운 과학자가 가자는 데로 가고 있잖아." 쇼우가 킬킬대며 말했다.

"방향은 정확해요. 만약 여기로부터 1 클릭 안에 있는 저 언덕에도 없으면 제 학위를 제 손으로 찢어버리겠어요!" 챔플레인이 초조해하며 말했다. "어쨌든 이 사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놈들이 번식할 순 없을 테니까요. 부화장이 없으니."

사냥꾼들은 산등성이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린의 눈에는 드넓은 계곡과 계곡 위를 덮은 거대한 평지가 들어왔다.

"우와!" 챔플레인이 말 했다. 대자연의 위엄은 압도적이었다.

"이게 모루 바위에요." 린이 설명했다. "초쓰는 수백 년 전에 "땅으로 돌아가자"는 신념을 가진 정착민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이들은 자신을 "아나란자도 노벤타", 또는 "주황색의 90 인"이라고 불렀죠. 실제로는 200 명이 넘었지만요. 그들은 이 바위를 영혼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후론 100 년 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죠. 제가 17 살 때..."

"저걸 보세요!" 챔플레인이 외쳤다. 쇼우는 왼쪽 언덕을 타고 내려갔고. 린은 자신의 쌍안경을 급히 꺼내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곳, 계곡 아래의 그늘 안에... 동지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징그러운 모습이었다. 발톱 형태의 뿌리가 지탱하는 연골로 이루어진 붉은 나무는, 린이 어릴 때 옛날 책에서 본 사진의 모습 그대로였고, 동지탑의 줄기는 고동치고 막으로 이루어진 숨쉬는 분출구를 지탱하고 있었다.

'악마의 뒷구멍 같은 모습이군.' 린은 머리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참 크기도 하지.'

모루 바위의 전 돌출부는 펄럭이는 날개와 산란관들로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지 린은 차마 그 수를 셀 수 없었다. 그 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온 무리는 한꺼번에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놈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고 날개를 펄럭이며 가시 돋친 돌출부로 마음껏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놈들은 끔찍한 죽음의 비명이 되어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테켈리-리!" '이리 와서 죽어라.'

희망을 잃을 정도로 거대한 무리가 다시 동지탑 주위에 내려앉자, 린은 생각했다. '골리앗이 더 필요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챔플레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네들의 모루 바위는 아마 광물 침전물로 가득할 거예요. 이들이 마치 옛 스텔스기의 레이더 반사에 쓰이던 아이언볼 도료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왜 위성 탐지를 통해 놈들을 찾아낼 수 없었는지 알겠군요. 정화 팀이 놓친 것도 당연하고요! 뮤탈리스크들은 그저 이곳의 동지탑에 끌렸겠지만, 운 좋게도 완벽한 은신처를 찾아낸 셈이었군요."

"어쩌면 단순히 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위성에 들키지 않게 숨은 걸지도 모르잖아요." 린이 투덜거렸다.

"아뇨, 아뇨. 뮤탈리스크는 레이더처럼 복잡한 개념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챔플레인이 답했다.

"아까 저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린이 말했다.

챔플레인은 조용히 거대한 저그 무리를 바라봤다. 쇼우가 거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좋아 챔플레인, 네 멍청한 연구 장비를 내 골리앗에서 내리고 저기 예쁜 보안관의 LAV 에 실으라고. 난 이 커다란 똥파리들을 끈적끈적한 창조주 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 * *

30 분 뒤에 린과 챔플레인은 등지탑을 가로질러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저 망할 것을 뒤흔들어 주자고." 쇼우가 말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등지탑 옆으로 지나가. 최대한 큰 소리로, 그냥 질주하는 거야!"

린은 그와 언쟁을 나눴다. 아무리 엄청난 무장을 했다고 해도, 쇼우의 골리앗 하나로는 저 거대한 등지탑을 부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히 아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그가 쏘아붙이며 답했다. "사실 등지탑을 부수는 건 어렵지 않아... 저 못생긴 놈들만 없으면 말이지."

린이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마다 낡은 LAV 는 크게 흔들리고 요동쳤지만, 가까스로 견뎌냈다. 챔플레인은 뒤에 앉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커다란 최첨단 기기를 만지고 있었다.

"대체 그게 뭔가요, 선생님?!" 린이 바람을 맞으며 외쳤다.

"합성 페로몬 분출기요. 제 이론에 따르면 뮤탈리스크는 정신의 감응이 아닌 냄새를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다양한 냄새로요. 저는 몇 개의 표본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걸 사용해서 놈들을 쫓아내려고요. 이 냄새는 부화장이 산란할 때 풍기는 냄새예요!"

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우웬.' "자주 사용하세요?" 그녀가 뒤돌아보며 외쳤다.

"아니요!" 그가 자랑스러운 듯 외쳤다. "지난 주에 간신히 만들었다고요! 이게 통할지 궁금해요!"

'멋지네.' 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임무에 집중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린과 챔플레인이 고속으로 뮤탈리스크들을 유인한다. 그 시간에 쇼우는 플라이스왈터를 타고 동지탑 상단의 구멍에 폭발물을 심고 폭발시킨 다음, 동지로 돌아오는 적 무리를 학살한다.

"이 망할 놈들을 한 데 뭉치게 하면 네가 이긴 거야." 쇼우가 말했다. "쉬운 일이라고."

린은 쇼우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나 했으면 하고 바랐다. 왜냐면 그가 말한 차선책은 그녀가 열 받은 어마어마한 뮤탈리스크 무리를 이끌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사막으로 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곡의 평평한 부분에 도달하자 동지탑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런," 챔플레인이 말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크네요!"

그 말로는 한참 모자랐다. 린은 속도를 올렸지만 동지탑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마침내 LAV가 동지탑에 접근했고, 린은 생각했다. '*죽기 밖에 더하겠어?*' 그녀는 힘껏 경적을 울렸다.

엄청난 경적은 마치 망치로 수박을 뭉개듯, 사막의 공기를 강타했다. 뮤탈리스크 무리는 천둥과 같이 날아올랐고 린은 맹렬한 기세로 협곡을 가로질렀다.

"저길 보세요!" 챔플레인의 목소리는 기쁜 듯했다. "정면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특별한 뮤탈리스크예요! 보세요!"

린은 용기를 내어 어깨 너머를 힐끗 보았다. '좋지 않아. 정말 좋지 않다고.' 펄럭이는 날개와 철컹거리는 껍질의 바다를 뒤돌아보다니.

하지만 챔플레인은 집요했다. "보세요! 위턱 근처의 흉터가 보이세요? 하복부의 줄무늬는요? 바로 앞예요!"

린은 다시 한 번 힐끗 뒤를 바라보았다. 맵소사,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얼마나 못생긴 개자식이란 말인가. 린은 지금까지 본 뮤탈리스크들보다 더 못생긴 녀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상처투성이 괴물이 그녀의 그런 생각을

산산이 깨부셨다. 놈은 마치 철새 떼처럼 삼각형을 이루고 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었다.

산등성이 위로 쇼우는 플라이스왈터를 움직여 거대한 무방비 상태의 동지탑을 향해 달려들었다. 린은 화면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졸업식 연회에서 파트너의 치맛자락을 올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요! 상처 입은 놈을 보세요!" 챔플레인이 외쳤고, 린은 뒤돌아보았다. 놈은 원을 그리며 상공으로 올라가, 뒤로 돌아 날아가기 시작했다. 나머지 무리 역시 굴뚝의 연기가 선회하듯 방향을 바꿔 그를 쫓았다.

"우릴 따라오지 않아요." 린이 중얼거렸다. "쇼우! 놈들이 우릴 쫓지 않아요!"

챔플레인이 놀라 말했다. "폭발물을 설치할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보세요! 놈들이 동지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린은 무리가 동지탑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쇼우가 욱설을 내뿜는 소리를 들었다. 뮤탈리스크들은 플라이스왈터보다 먼저 동지탑에 도착해서는, 끔찍한 구름처럼 그 위를 맴돌았다.

린은 쇼우가 방향을 돌려 도망치며, 뮤탈리스크 몇 마리를 향해 어쩔 수 없이 미사일 몇 문을 난사하는 모습을 봤다.

'음, 엉망 진창이네.' 린은 생각했다.

* * *

그날 밤 그들은 모루 바위에서 1 클릭 떨어진 작은 동굴을 야영지로 삼았다. 린은 장비를 확인하다가, LAV 의 트렁크에 있는 AGG-12 유탄 발사기를 보며 잠시 상념에 빠졌다. '*이것도 아빠 거야, 내 총이 다 그렇지만.*'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걸 꺼냈다. '*젠장, 유탄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그걸 써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리타와 재스퍼가 만든 냄새가 근사한 스케일럿 수프를 진공 병에 담아, 쇼우가 플라이스왈터 안에 보관했던 군용 코일 가열기로 데웠다. 수프가 부글거리며 끓는 동안, 그들은 희미한 불빛 주위에 모여 차가워진 손을 녹였다.

쇼우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이후로 아무 말도 없었다. 지금도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볼 뿐이었다.

수프가 다 끓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다. 잠시 후, 챔플레인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 그리고는 가방을 한참 뒤적거리다가 작은 병을 꺼내, 뚜껑을 돌려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샤일로에서 휴가를 보냈었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거래요. 아, 위스키 말이에요."

그가 린에게 술병을 내밀었다.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병을 받아들고, 가만히 기울여 한 모금을 삼켰다. 부드럽고 뜨거운 샤일로 위스키가 그녀의 혀를 어루만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며 밤 사막의 한기를 가시게 했다. 린은 쇼우를 바라보며 다시 술을 건넸다.

쇼우는 그 병을 잠시 바라보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팔을 뻗어 위스키를 받아든 후, 그 향기를 음미하다가 입술을 뺐다.

"오늘 잘 했어, 너희 둘 다. 놈들이 뭔가에 겁을 먹었던데,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잖아. 뭐가 놈들을 움직이는지 우린 거의 모르니까." 그는 다시 한 모금을 마시고 병을 챔플레인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뮤탈리스크는 날 때부터 광기에 절어 있어. 식욕과 번식욕에서부터 피에 대한 광기까지. 뮤탈리스크는 2 클릭 떨어진 곳의 피 한 방울 냄새도 맡을 수 있지."

린은 챔플레인이 건네는 병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코일 가열기 빛이 쇼우의 눈 깊은 곳을 태웠다. *'마치 저 안에 불꽃이 살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광기 때문에 놈들은 우리와 비슷해. 그렇게... 놈들이 원하는 걸 이용해야 해. 놈들에게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해 주고. 그러면 놈들이 하나로 뭉칠 거야. 정신이 나간 것처럼 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때, 놈들을 쓸어버리는 거지."

린은 위스키를 훌쩍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등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챔플레인은 애써 목을 가다듬었다. "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게 됐어요? 아니, 음, 히스-데이비스 발작 행동모델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내 동료들 몇 명이나, 아니면 군인들... 왜, 있잖아요..."

쇼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술병을 받아들었다.

"마 사라가 끝장나던 때, 그러니까 상황이 무척 안 좋아졌을 때... 프로토스가 차우 사라를 거대한 유리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 그 자매 행성을 노리기 시작했을 때... 우린 그 행성의 주민 모두를 대피시키려고 했었지. 홀로비드나 어딘가에서 그 얘기를 접해 봤을 거야."

그리고 그는 술을 마셨다. 훌쩍이지 않고 크게 한 모금 꿀꺽.

"나는 후지어호의 중대 선임 하사관이었어. 선원이 1,200 명쯤 되는 전투순양함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긴급 구출 작전을 위해 출동해야 했지. 보급품을 적절히 챙기거나, 장비를 보충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커다란 깡통 안에 다 같이 들어서면서 기도를 했을 뿐..."

"후지어호에 탔었다고요?!" 새된 목소리로 말하는 챔플레인을, 린은 팔꿈치로 콧물 찼다.

"우린 4 천 명의 거주민들을 싣고 이륙했어. 탈출 지점으로 죽어라 날았지. 프로토스 이온포가 언제라도 우릴 꿰뚫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때는 저그에 대해 잘 몰랐어. 우주 공간에서도 날 수 있는 놈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두터운 침묵이 사막에 내려앉았다. 린은 쇼우와 챔플레인과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침묵이 내린 이곳에서, 그 소리는 축축하고, 시끄럽고, 부자연스럽기만 했다.

"그날 5 천 개의 영혼이 마 사라를 떠났어. 그리고 그 뮤탈리스크 떼와 맞닥뜨리는 순간, 5 천 개의 입이 비명을 질렀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고 거친 숨을 쉬었다. 린의 귀에는, 마치 어린 시절 아빠의 낡은 전기톱이 수풀에 깊이 박힌 채 연료가 떨어져 가며 덜덜거리는 소리 같았다.

"4 일 후, 선착장에서 우리 63 명이 구출됐어."

"운 좋은 63 명이군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챔플레인이 덧붙였다.

"운이라..." 쇼우는 웃었다. 무척 음울한 소리였다. "운 좋았지."

* * *

린은 재스퍼가 비명을 지르는 꿈을 꿨다. 그는 달리고, 또 달리며 그를 찾았다. 그 비명은! 그 소리는...

진짜였다. 단지, 비명을 지르는 것이 재스퍼가 아니었을 뿐.

번쩍 뜬 린의 눈에 새벽 하늘에서 펄럭이는 날개들이 보였다. 펄럭이며 빠르게 다가오는 날개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빠의 AGR-14 소총을 들어 올렸다. 쇼우가 플라이스와터의 꼭대기를 향해 버둥대며 달렸고, 벌떡 일어난 챔플레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들어가!" 그녀가 소리치며, 그의 윗옷을 붙잡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LAV 안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빙글 돌아 사거리 내에 진입한 첫 번째 뮤탈리스크에게 탄약을 쏟아 부으며 기도를 했다. 쇼우의 기관총이 회전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 * *

공격해 온 건 뮤탈리스크 열세 마리였다. 수가 더 많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자신의 마을에 들이닥친 *단 한 마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미 목격했던 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처음 아홉 마리는 공중에서 손쉽게 처리됐고, 다음 두 마리도 레이저 광선에 맞아 추락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 공격은 할 수 없었고, 마지막 두 마리가 플라이스와터에 접근했다. 쇼우가 놈들을 떨어내고 별집을 만드는 동안, 골리앗 양쪽의 미사일 포는 박살이 났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놈들은 우릴 쫓고 있었어요, 쇼우!" 우릴 쫓고 있었다고요!" 린은 서둘러 LAV 에 자신의 장비를 싣고 있었다. *'멍청한 짓이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끈지가 빠져라 마을로 도망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뿐.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스트롱의 집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자식도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키겠지.'*

"뮤탈리스크는 원래 그래! 그게 본능이라고!" 쇼우가 으르렁대며, 박살이 난 미사일 포를 플라이스وات터에서 뜯어냈다.

"두 마리나 다섯 마리, 많아야 여섯 마리 정도나 그럴것죠! 당신이 녀석들을 어제 처치했잖아요!" 린이 소리쳤다. "놈들은 바로 우릴 쫓고 있었어요. 우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데!"

"확실히 아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보안관!" 쇼우가 으르렁거렸다.

"제가 아는 건, 당신이 이렇게 군인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치다가 우리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꼴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놈들이 우릴 쫓아와서 끝장이 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돌아가야겠- "

쇼우가 차의 구동 벨트를 쏘다. 린이 지금 막 짐을 싣고 있던 LAV 가, 그녀가 아기처럼 보살피고 수리하고 사랑해 왔던, 함께 집으로 돌아가 리타와 재스퍼와 빌르 박사와 다른 모두를 구하겠노라 마음 먹었던 그 차가, 한 순간에 쓸모 없는 쇳덩어리가 되었다. 쇼우가 빌어먹을 레이저 총으로 차량의 구동 벨트를 날려버리는 순간.

"미쳤어요. 당신은 미쳤다고요, 우릴 다 죽게 만들 거예요!" 씩씩대며 린이 말했다.

"오늘 죽는 건 저 벌레들뿐이야! 난 지금까지 등지탑 수백 개를 날려버렸고, 앞으로도 백 개쯤은 더 부숴 주겠어. 저 더러운 똥덩어리가 땅에 처박히는 꼴을 보면, 너희도 내게 감사하게 될 걸. 네 뱃속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겐 용기라는 게 있으니까. 자, 올라타. 내가 끌어줄 테니."

* * *

린은 그렇게 언덕 위로 올라서, 쇼우가 또 한 번의 기습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LAV 를 언덕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가파른 협곡 옆에 피신처처럼 솟은 바위에 바싹 붙여 놓았다. 사막은 걸어서 통과하려면 3 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또 가방에 충분한 물을 담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

아침에 있었던 공격 이후 챔플레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저 차량 보닛에 앉아 손톱만 물어 뜯었다. 협곡 아래에서는 쇼우가 미끼를 풀어 놓았다. 미끼는 자그마한 싸구려 로봇 활강기로, 커다란 소음 발생기가 붙어 있었다.

린은 불현듯 어제 일을 떠올렸다. *'미끼라, 저 개자식한테 미끼가 있었어. 그런데도 어제 우리에게 저그 무리를 유인하라고 시켰단 말이지.'* 그와 함께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적 무리는 미끼를 따라 날아올라 잠시 그 뒤를 쫓았지만, 쇼우가 등지탑 쪽으로 향하는 순간, 정확히 세 무리로 나뉘어 공격을 시작했다.

'협공이다. 빌어먹을, 놈들이 쇼우를 몰아 넣었어!' 린이 전황을 깨달음과 동시에 챔플레인이 헉 하고 가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쇼우는 모든 무기를 발사했다. 기관총이 불꽃을 품고, 고출력 레이저가 수십 마리 뮤탈리스크를 반으로 갈랐다. 하지만, 한 마리가 추락할 때마다 십여 마리가 다시 나타나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저 자가 죽고 말 거예요!" 챔플레인이 소리쳤다.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야 해요! 제 장비가!"

그는 가방을 뒤져 축구공 크기의 묘한 장치를 꺼냈다. "좀 도와줘요." 챔플레인이 더듬거리며 말하는 사이, 협곡 아래에서는 비틀거리는 골리앗이 뮤탈리스크를 쓰러뜨리는 속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저그 떼가 밀려들었다.

'아, 제길!' 린은 AGR-14 소총을 들어 올렸다.

둘은 협곡 가장자리의 봉우리를 따라 달렸고, 챔플레인은 페로몬 폭탄을 조작했다. 그 폭탄은 위잉거리는 높은 소리를 내뿜으며 린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즉시, 뮤탈리스크 세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린은 사격을 시작했다. 한 마리가 날개를 잃고 산성 혈액을 흘뿌리며 절벽 아래로 추락했지만, 다른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꽤기 벌레가 린 앞의 땅에 쏟아져 내렸다. 계속해서 총을 발사하자, 뮤탈리스크들은 프라이팬 위의 팝콘처럼 폭발했다. 그 와중에 산성 체액이 그녀의 왼손 중지부터 세 개의 손가락에 쏟아져 내렸고, 곧 손이 타들어가며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거의 끝났!" 챔플레인이 소리를 지를 때 한 마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

챔플레인이 자신을 잡으려 드는 산란관을 피해 휘청거리는 모습은 느린 속도로 재생한 영상 같았다. 마치 시간이 느려지기라도 한 듯, 모든 일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린의 눈에 들어왔다. 튀어나온 돌에 발이 걸린 그가 균형을 잃었고, 몸이 공중에 떠오르다가...

... 결국 협곡 아래로 사라졌다.

린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놓았다. 가슴 속에서 괴물들에 대한 뜨거운 증오가 끓어올랐다.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

꽤기탄이 가까이에 있던 뮤탈리스크의 껍질을 유린하고, 놈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게다가 놈에게서 분출한 체액이 다른 하나를 뒤덮고, 그녀석마저 돌덩이처럼 추락하는 소리는 무척 반가웠다.

린은 LAV 화면을 통해 쇼우가 육설을 내뿜는 소리를 듣고 협곡 가장자리로 달렸다.

"챔플레인!" 그녀는 새된 소리를 질렀다. "챔플레인! 브래드!" 아래에 놓인 그의 몸은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움직이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녀는 바위에 기대 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울고 싶은 마음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아냈다. 계곡 아래에서는 플라이스워터가 그 끔찍한 가시 돋친 날개들에 뒤덮여 있었다. 쇼우는 싸우고 또 싸웠지만, 점차 증가하는 적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렸다. 뮤탈리스크가 연이어 폭발하며 쏟아진 끔찍한 산성액은 상부 철갑을 뚫고, 방어구를 뚫고, 내부의 조종사마저도 태우고 있었다.

린은 그에게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뮤탈리스크가 너무, 너무 많았다. 비틀거리며 쓰러져 가는 절망적인 골리앗과 그 안의 불운한 병사 위에서 스카가 맴돌았다. *'내가'*

그 이름을 언제 붙였더라? 그녀는 멍하니 생각했다. *'아, 신이여, 챔피언이 좋아하던 저 뮤탈리스크가 우리를 모두 죽이고 말 건가?'*

스카가 급강하했다. 다른 뮤탈리스크들은 호수 위 파문처럼 흩어졌다. 린은 스카가 부서져 가는 방어구를 물고 뜯어내는 모습을, 쇼우가 최악의 악몽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봤다. 스카가 쇼우의 얼굴에 끔찍한 사신의 일갈을 내뿜는 것을 봤다. "테켈리-리!" 쇼우가 자신의 요람이자 무덤에서 몸을 내밀고 마주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학살자에게로 향하는 원시적인 분노의 비명을 들으며,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용감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린은 일행 모두를 파멸에 밀어 넣은 이 무시무시하고 미친 투사에게 자기도 모르게 가슴 저린 동정과 애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순간, 스카가 날카로운 가시로 쇼우의 가슴을 꿰뚫었다. 희미한 파열음과 함께 쇼우의 고함 소리가 녹녹하고 거친 호흡으로 끝을 맺었다. 뮤탈리스크들은 이제 한 인간이 아닌 식어가는 사체에 광기에 찬 이빨을 박아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살아 나갈 길은 저 골리앗뿐인데, 저렇게 뮤탈리스크에 둘러싸여 있으니... 놈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서 열 걸음도 못 걷고 따라잡힐 거야.'*

손이 타는 듯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다. 손을 흘긋 바라본 린은 구역질을 억눌러야 했다.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으며 토할 것 같은 울렁거림과 싸웠다.

욕지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린은 증오스러운 등지탑을 바라봤다. 그 뒤에 솟아오른 모루 바위를 바라봤다. 한때는 쇼우였던, 꿈틀거리는 고깃덩이를 바라봤다.

'뮤탈리스크의 체액은 대기 중에 노출되면 강한 부식성을 띤다.' 그간 접했던 지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놈들이 원하는 걸 이용해야 해.'* 야영지에서 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뮤탈리스크는 2 클릭 떨어진 곳의 피 한 방울 냄새도 맡을 수 있어.'*

린은 모두 때려치울 생각을 했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휴양 도시쯤 내버리려고 해봤다. 뮤탈리스크 무리가 멧돼지와 박쥐를 모두 먹어 치운 후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홀로 남은 리타와 재스퍼가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아니, 선택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지를 고려했을 때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린은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며 LAV 로 돌아가, 응급 처치 가방을 뒤져 빌르 박사에게 빌린 레이저 칼을 찾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왼손을 다시 흘긋 쳐다보자, 새끼손가락과 약손가락, 가운데손가락이 모두 부글거리는 살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린은 가방 손잡이를 이 사이에 물고 망가진 손가락에 칼을 가져다 댔다.

빨리, 봉대를 감는 것처럼. 가죽 손잡이를 더 악물자, 목을 따라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하나... 둘...'

휙 소리를 동반한 타는 냄새와 함께, 린은 재빨리 자신의 세 손가락을 밑둥에서 잘라냈다.

마치 배에 칼을 꽂아 넣는 것처럼, 고통이 그녀를 꿰뚫었다. 날뛰는 검은 점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기절하지 않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가방 손잡이를 끊어지기 직전까지 깨물자 초점이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LAV 트렁크를 열고 아버지의 낡은 AGG-12 유탄 발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린 단 한 발의 응징자 유탄에 대해 생각했다. 운이 좋으면 한 데 몰려 있는 뮤탈리스크를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 날려버릴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도 손 다섯 마리가 남겠지만.'*

유탄은 20 년 전의 제품이었다. 그녀는 유탄 발사기가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새 유탄을 살 생각을 왜 못한 걸까?'* 보안관서에는 적어도 십여 통의 QSD 인쇄용지가 남아 있었다. 그 대신 유탄을 주문했었다더라면. *'그냥 주문서만 다르게 썼으면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 없어. 어쨌게든 될 거야. 집중해야 해. 집중하고 걸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린은 동지탑과 파괴된 골리앗, 모루 바위를 크게 돌아 살금살금 움직였다. 목 뒤의 땀이 말랐다. 태양이 내려앉으며 그녀의 맨살이 지글거렸다.

마침내, *마침내*, 모루 바위의 뒤에 도달했다.

그 밑등에 다다른 후에야 그 바위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공알만 해진 기분이네. 올려다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기분이야. 몸소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어지러웠을 텐데.' 마을 옆의 협곡 절벽을
떠오르게 하는 그 크기에 린은 뱃속이 불편해졌다.

'이 돌을 기어오를 순 없어.' 하지만 그녀는 재스퍼와 리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두 개만 남은 손으로 튀어나온 첫 번째 돌을 붙잡았다.

* * *

공포에 질린 채 벼랑을 서서히 기어 오르는 그녀의 등에 햇살이 내리쬐었다. '나보다
덩치가 1.5 배는 더 큰 남자가 써야 할 무기를 짊어지고, 손가락도 세 개 없어졌는데
이려고 있네... 암벽 등반 초보자에게 딱 좋은 코스인걸.'

그래도 계속 기어 올랐다.

뮤탈리스크들이 쇼우의 시체를 잡아뜯는 딸각딸각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 녀석들,
조금만 더 기다려. 난 담쟁이 덩굴처럼 이 망할 절벽에 매달린 채 잡아먹히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절반쯤 기어 오르자 발 아래 땅이 위태롭게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린은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느꼈다. '참아도 소용 없겠지.' 그리고 토했다. 어지러웠다. 탈수
증상을 보이며, 태양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 기어 올랐다.

마침내 린의 손이 평평하고 오븐처럼 뜨거운 바위 꼭대기에 닿았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이 그 뒤를 따랐다. '올라가. 올라가! 어서! 제발!' 그렇게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기어 오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겁에 질린 린은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서둘러 기었다. 모루 바위의 가장자리까지 기어간 그녀는 - '내려다보지 마!' - AGG-
12 로 조심스럽게 모루 바위에서 등지탐을, 다시 등지탐에서 골리앗과 거기 남아
있는 끈적끈적한 뼈다귀를 겨냥했다. '생각하지 마!'

'단 한 번의 기회야. 망쳐버리지 마.'

욕지기가 밀려오는 것을 다시 한 번 참아내며, 린은 남은 손가락 마디를 이 사이에 넣고 깨물었다.

고통이 새롭게 온 몸을 꿰뚫고, 시야가 널을 뛰었다. '*기절할 생각은 하지도 마!*' 그녀는 자신에게 고함을 질렀다. 피가 뚝어져 나와 입을 가득 채웠다...

숨이 막혀 헐떡이며, 웃음과 울음의 사이에서, 린은 벼랑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 입 안 가득한 피를 빨았다.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자기 부상 열차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백 개의 가죽 날개가 대기를 찢었다. 저그 무리는 스카 주위에 모여 최단거리로 린을 향해 날았다. 그녀는 유탄 발사기를 끌어 당겼다...

'아직이야...'

비명 사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외마디 울음 소리가 린의 뺨속을 잡아당겼다. 50 마리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이제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테켈리-리! 테켈리-리이이!" 모든 신경 말단이 그녀에게 달아나라고 애원했다.

'아직이야!'

놈들이 거리를 좁혀왔다! 남은 거리가 절반으로 줄고, 다시 또 절반이 줄었다! 꿈틀거리는 날개 구름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단 하나의 먹이를 노리며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저그의 육신들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마치 단 하나의 꿈틀거리는 생물처럼 뭉쳤다...

뮤탈리스크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늘 위에서 하나의 추악한 얼룩으로 변했다. 린이 그 덩어리를 응시하자, 그 정점에 무시무시한 생물 한 마리가 보였다. 주둥이가 거미줄 같은 흉터에 덮인 괴수였다!

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늌쇠를 내리고, 유탄 한 발을 발사했다.

낮았다.

그 망할 녀석을 맞추기에는 너무 낮았다.

저그 무리를 스쳐 맞추기에도 나무 낮았다.

... 하지만 유탄은 정확히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흘러가...

... 동지탑 꼭대기의 구멍으로 들어갔다. 저그 무리는 그 위에 모여 있었다.

찰나의 순간, 폭발하는 동지탑에서 쏟아져 나온 부식성 체액에 저그 무리가 모두 휩쓸렸다. 린은 놈들의 울음이 죽음의 비명으로 바뀌는 소리를 듣고, 맹독성 체액이 분출하면서 껍질과 날개가 모두 끓어오르는 모습을 봤다. 그 망할 놈들이 죽어가는 "냄새"를 맡았다.

모여 있는 적을 없애는 데는 방사 피해가 최고다.

* * *

그녀는 미끄러지고 구르며 절벽을 내려왔다. 모루 바위의 동지탑 쪽 면은 조금 덜 가파랐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까지 목격한 린은 언제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몇 미터를 걷지 못하고 굴러 떨어졌고...

... 어둠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 * *

린은 절뚝거리는 골리앗이 내는 와지끈! 와지끈!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여기가 어디지?' 세상이 물결치며 눈에 들어오는 와중에 그녀가 느긋하게 생각했다.

의식이 되돌아오며, 린은 자신이 칙칙 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는 플라이스왈터에 부착된 연구선에 타고 있음을 깨달았다. 팔뚝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 시선을 돌리니, 정맥 주사가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게 보였다.

"쇼우?" 그녀는 멍하니 이름을 부르며, 상황을 이해해보려 애썼다.

"세론 보안관! 깨어났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쇼우가 아니었다. 챔플레인이 살아남아서 골리앗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익숙하지 않은 계기판과 한 손으로 씨름을 했다. 그래도 애써 고개를 돌려 린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활짝 웃고 있었다.

린은 멀쩡이 앉아, 골리앗 몸체에 묶인 스카의 상체를 바라봤다. 그 괴물의 내장에서는 연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보상은 받았잖아요. 저 큰 건을 잡았으니까요!"

브래드가 빙글 돌아 그녀를 향해 웃으며, 깨진 안경을 코 위로 올려 썼다.

"그러네요."

린은 마치 폭포수처럼 호탕하게 웃었다. 마치 그녀의 몸이 '난 살아있어!'라고 외치고 싶기라도 한 듯, 웃음이 뿜어져 나왔다.

브래드도 웃기 시작했다.

브래드가 킬킬대며 배꼽을 잡자 *플라이스워터*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댔고,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자제력을 되찾은 브래드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등지탑을 날려 버렸을 때, 아니, 그 무지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 때 정신이 들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기어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소린지도 몰랐죠.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떻게 되긴 하더라고요. 나와 보니 둘이 보였어요. 보안관하고 저 뮤탈리스크가,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었어요."

"그래요, 브래드 챔플레인." 린은 웃었다. "제 영웅이네요."

그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체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SRO 가 제대로 된 과학자를 고용한 모양이네요. 망할 물건은 제대로 구해내고, 그 대가는 제 손가락 몇 개뿐이었으니까."

챔플레인은 골리앗을 멈춰 세우고 뒤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죠. 이번 일 때문에 골탕 좀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제대로 값을 치러야 할지도... 예를 들면... 장거리 미사일 방어 포탑 한두 기라든가...?"

린은 챔플레인의 얼굴에 떠오른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박사님.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둘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끝.